

결과 보고서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한 복원력이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교육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2016 년 8 월 30 일

지역 차원에서의 10 가지 필수 조건과 센다이강령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

2016 년 8 월 30 일 월요일, 부산광역시 18 개 자치구의 관계자들은 “복원력이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과 10 가지 필수 조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UNISDR 이 진행한 행사에 참가했다. 더불어 이 워크숍은 참가한 관계자들에게 좋은 사례나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UNISDR, 국민안전처, 부산광역시 관계자들

부산광역시의 재난 위험성과 복원력에 관하여

Busan's geographic location poses several types of disaster risks. With three sides of the city bordering the sea, Busan is vulnerable to typhoons and torrential rains. Since many residential areas in the city have formed along mountainous regions, they are more vulnerable to floods and mudslides due to surface runoff. Due to abnormal weather patterns across the world, there is a higher chance of facing a disaster in a very localized area. This has increased concerns over damage from torrential rains which have worsened in recent years due to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부산은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여러 재난에 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도시의 3 면이 바다가기에 부산은 태풍과 폭우에 취약하며, 많은 거주지역이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은 홍수와 산사태에 노출되어 있다. 전세계적인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 차원의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결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증가하였다.¹

복원력이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복원력이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영어: “Making Cities Resilient”, 약자로 “MCR”)은 도시 정부 관계자들이 센다이강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캠페인이다.

이번 워크숍에 대하여

이번 워크숍은 부산광역시 관계자들의 복원력이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과 10 가지 필수 조건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좋은 사례의 소개에 따른 “재난 경감에 민감한 도시 계획”의 유도에 그 목적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UNISDR, 국민안전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재난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인 재난위험, 위험요소, 복원력과 위험에 대한 노출 등에 대한 정의, 센다이강령과 지역 차원에서의 실행의 중요성, 10 가지 필수조건에 대한 정보 등을 얻었다. 10 가지 필수조건에 대해서는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재난위험 경감의 실행에 따른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결과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재난 경감, 센다이강령, 도시 정부의 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다. 또한 부산광역시 관계자들은 복원력이 강한 도시 캠페인에 대해 이해하고, 10 가지 필수조건을 사용해서 롤모델 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¹ 부산시에 대한 소개: <http://www.unisdr.org/campaign/resilientcities/home/cityprofile/City%20Profile%20Of%20Busan/?id=4468>



복원력이 강한 도시 캠페인과 재난 관리에 대한 워크숍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도시 관계자들은 홍수 관리의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어떻게 재난을 고려하며 양수장을 만들었는지, 연제구에서는 양수장을 설치하면서 대중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에게 연극을 진행하였는지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북구에서는 2013 년 폭우 이후 그 다음해인 2014 년 재난 관리에 대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재난 관련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남구에서는 재난 대응 고급인력을 항시 대기시키고 재난의 모든 단계(재난 이전, 재난 대응, 재난 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